

##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산상변모주일로 기념합니다. 예전 색깔은 흰색입니다. 2월 22일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9일 부활절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순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제금을 모금에 다하나교회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2월 26일과 3월 5일 두 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사순절 묵상집을 신청하신 분들은 위충일 집사에게 받아 가십시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0일: 성백찬 형제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양하나 집사 / 번역: 김명하 형제
- 2월 안내 및 봉사: 쌍쌍 목장

### \*교회 향후 일정

- 주일학교 교사 위로회: 3월 5일 주일 예배 후 5시에 있습니다.
- 부장회의: 3월 12일 예배 후 4시 30분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세운날 2017.6.11

2023-08

2월19일 (산상변모주일)

# 다하나교회

One Heart Korean Church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Zoom으로 오후 8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https://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마17장 5-8절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위충일 집사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찬송 ————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같이

성경봉독 ———— 창세기 18장 16-19절 ———— 인도자

설교 ———— 의와 공도의 하나님 나라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 목회 칼럼 / 어느 발렌타인데이

지난 화요일은 발렌타인데이(Valentine Day)였습니다. 어린 시절 발렌타인 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 시절 발렌타인데이와 졸업식이 겹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졸업선물하기 부담스러우면 초콜릿 하나로 통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원짜리 가나 초콜릿 하나의 그 달콤함은 지금도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졸업식날이면 동네 짜장면집마다 자리가 가득 매워져 자리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식날에 왜 짜장면을 먹는 풍습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보면 졸업식에 짜장면,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이라는 의례와 관습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우리네 인생을 즐기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에게 꼬박 꼬박 발렌타인 선물과 꽃을 선물하곤 했는데 아이들 태어나고 생략하기로 했죠. 1년 365일이 발렌타인 데이가 되게 해줄게 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그렇게 통치고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각주로 소비주의 상술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덧붙이고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발렌타인 데이를 부담 없이 넘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작은 장미 한 다발이라도 아내에게 주고픈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손편지 한 통과 장미 몇 송이 밖에 안되는 작은 다발을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꽃을 사며 낭만을 잃어버린 지난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편지 한 통 쓰고 꽃 한송이 전해주고 포옹 한 번 해주는 것이 별 거라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 온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절기는 특별하게 지키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렌타인과 초콜릿 쌍처럼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사순절과 봄이 쌍으로 연상이 됩니다. 사순절의 낭만이라고 할까요? 사순절은 결코 낭만과 거리가 먼 절기이지만 사순절 기간에 마주하곤 했던 봄기운이 너무 반가워 사순절은 항상 봄과 연결되곤 했습니다. 사순절은 온갖 생명체들이 잠시 자기를 죽이고 움츠려 있는 듯한 겨울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소생을 꿈꾸는 기간이죠. 혹독한 겨울의 시련이 크고 깊을수록 봄을 맞는 기쁨은 배가 되듯, 고난의 의미와 실체가 나에게 깊이 다가올수록 부활의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별건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을 확인하는 발렌타인 데이처럼 사순절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맛보기 위해 절제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뜻깊은 사순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낭만이 이 사순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